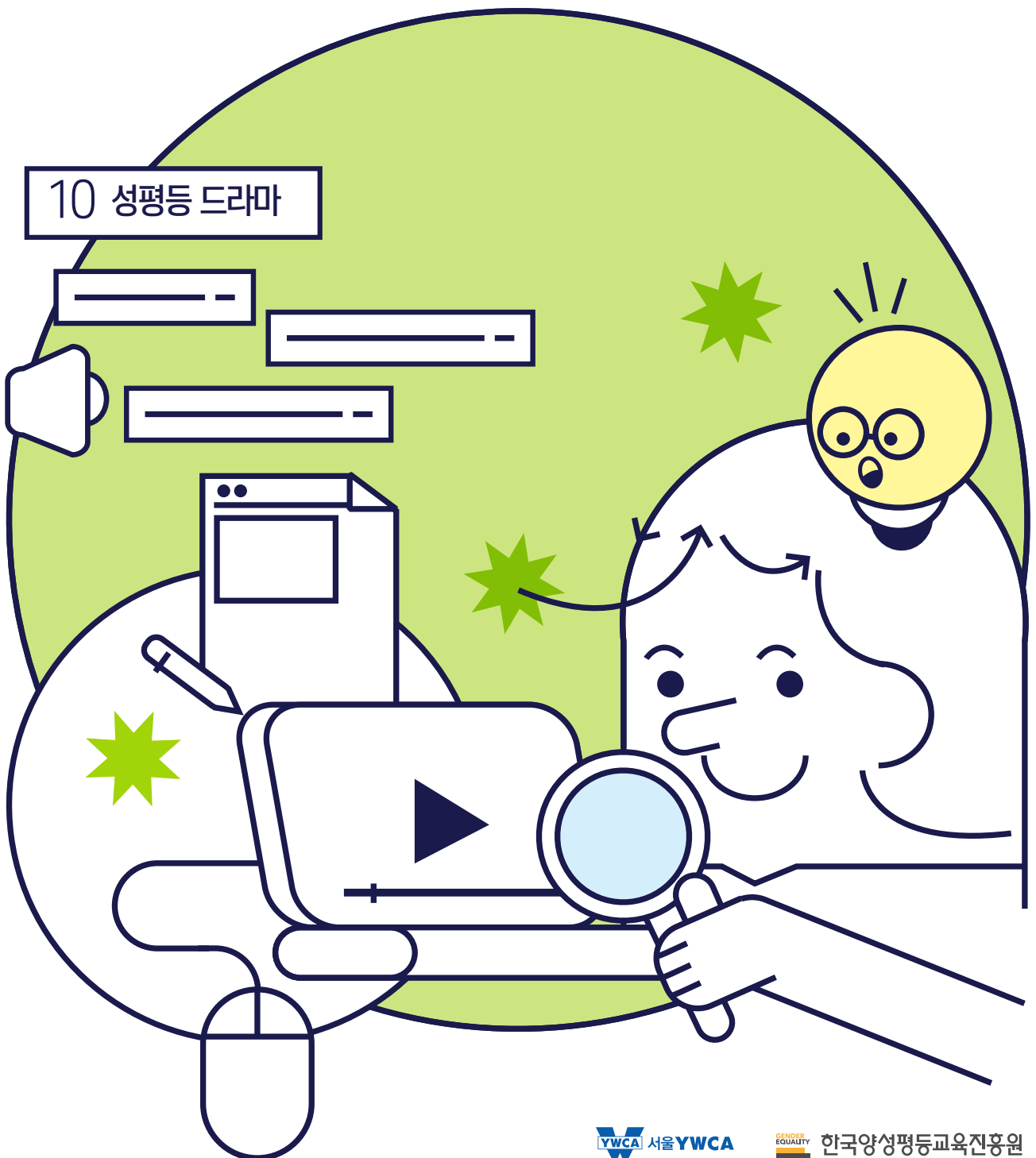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CONTENTS

06

들어가며

07

프로그램 소개

11

프로그램 내용분석

30

나가며

한국 성평등 드라마 내용분석 보고서

2020. 08. 05 - 08. 26

모니터링 대상

6 개 프로그램

- 전회차 분석
- 2019-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중 <시민이 제보한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 캠페인에서 성평등 드라마로 다수의 추천을 받았던 작품과, 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다양한 삶의 모습 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평가받는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매체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
모니터링 인원 : 6명
모니터링 지표 :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년도	요일/시간
1		MBC	신입사관 구해령	2019	수, 목/20:55
2	지상파	KBS 2TV	출사표	2020	수, 목/21:30
3		SBS	하이어나	2020	금, 토/22:00
4	종합 편성채널	JTBC	멜로가 체질	2019	금, 토/22:50
5			눈이 부시게	2019	월, 화/21:30
6	케이블	tvN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2020	월, 화/21:00

모니터링 지표 :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
-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
-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 나이,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총 6개의 드라마에 대하여 위의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 성평등한 장면을 모니터링하였다. 한 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한 개의 드라마 전 회차를 모니터링했다. 각기 다른 주제와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보고서에는 각 프로그램 별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담았다.



01 들어가며

서울YWCA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2014년부터 TV 예능, 광고, 시사, 뉴스 프로그램은 물론,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매체를 성평등, 성차별 관점에서 모니터링 해왔다. 서울YWCA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젠더재현 사례에 관한 문제제기만큼, 여성의 주체성, 성차별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삶의 모습 등을 담은 콘텐츠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이에 2019년에는 해외 드라마를, 이번 2020년도에는 최근 한국에서 2년 내 방영된 국내 드라마를 모니터링 했다. 이번 모니터링이 성차별적인 콘텐츠의 대안으로서 성평등 미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02 프로그램 소개

아래 프로그램 소개는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 신입사관 구해령

MBC / 2019.07.17. ~ 2019.09.26.



중종 14년 4월 22일, 동지사 김안국이 중종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옛날에는 여사(女史)를 두어 규문 안의 일도 전부 기록하였으니, 왕이 혼자 있을 때에도 동정과 언위를 바르게 했습니다. 해서 후손들이 보고 배우는 바가 많았고...” 하지만 중종은 “요즘 여인들은 글을 잘 몰라서”, “사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드라마는 중종이 만약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 조선시대에 ‘여사제도’가 정착되었다면 일어났을 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여사들은 사책과 붓을 들고 궁궐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어느 사관들 처럼 입시를 했을 것이고, 실록에는 왕과 중전의 부부싸움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했을 것이, ‘사필(史筆)’을 하는 계집’이란 손가락질 속에 별종 취급받던 여사들도, 차츰 조선 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변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과는 또 다른 조선을 만들어 냈을지도 모른다.

2 하이어나

SBS / 2020.02.21. ~ 2020.04.11.

하이어나. 무엇이 떠오르는가. 시커멓고 털에 윤기라고는 없으며, 다른 맹수들의 사냥감을 도둑질하는, 약삭빠르고 야비한 존재. 우리의 주인공들도 그렇게 불린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본과 권력의 탑 클래스, 그들의 최측근에서 뒤통다끼리를 해주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청소부나 다름없는 하이어나들이라고.

세상 사악하고, 세상 썩어가고, ‘돈’을 벌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호사계의 변종, 잡초



같은 정금자. 법률 엘리트 중의 엘리트, 세상 잘난, 자만심과 자존심으로 쌓인, 변호사계의 금수저, 화초 같은 윤희재. 서로 완벽히 다른 그들이 하이 클래스들을 대리하는 하이에나가 된다. 이 드라마는 그들과 그들을 둘러싼 각종 인간 군상들이 펼쳐는, 처절한 생존 게임이자 피! 튀기는 인간 극장이다.

3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tvN / 2020.06.01. ~ 2020.07.21.



자식들이 모르는 부모들의 비밀은 얼마나 많을까? 반대로, 부모들만 모르는 자식들의 비밀은 얼마나 많을까? 가족보다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인연들이 있다. 오래된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단골집 주인이나 카페 알바생, SNS 친구 등. 우리는 때때로 그들과 더 많은 비밀을,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기도 하고, '누가 보지만 않으면 슬쩍 어디다 내다 버리고 싶다'며 가족들과의 오래 묵은 애증을 털어놓기도 한다.

'나'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이다. 가족은 아니지만,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는 가족 같은 타인과 타인 같은 가족이 오해를 극복하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4 눈이 부시게

JTBC / 2019.02.11. ~ 2019.03.19.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채 써보지도 못하고 빼앗겨 노인이 되어버린 25세의 억울한 여자, 김혜자. 그녀는 시간을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시계를 가지고 있다. 어느 날,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가 교



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자, 그를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 대가로 혜자는 하루 만에 노인이 되어버렸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고 하루빨리 늙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는 26세의 남자, 이준하. 어머니는 준하가 어릴 때 자식을 버리고 갔고, 아버지는 도박꾼이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할머니와 살고 있는 준하. 가진 것은 없어도 잘 살아보려 하지만 매번 아버지가 찾아와 일상을 망가뜨려 버린다. 현실의 벽에 갇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준하.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지닌 그들을 통해 시간의 의미를 다시 그려보고자 한다.

5 멜로가 체질

JTBC / 2019.08.09. ~ 2019.09.28.



서른,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서른 살이기에 아직 꿈을 꾸는 그들. 일과 연애에 대한 고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위로 받으며 한 걸음씩 성장하는 서른 살 그녀들의 판타지. 비록 현재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을지라도! 이룬 것이 단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곳곳하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서른들에게 이 드라마를 바친다.

6 출사표

KBS 2TV / 2020.07.01. ~ 2020.08.20.

2019년 서울특별시 oo구 예산은 6,326억 원이다. 구청은 그 돈으로 도서관을 짓거나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복지 수당을 지급한다. 이때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바로 구의원이다. 서울 25개의 구에서 약 400 여 명의 구의원들이 일한다. 4년간 평균 연봉 4-5천



만 원을 받으며, 겸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네 구의원의 이름, 얼굴, 소속 정당도 모른다. 심지어 내가 뽑은 후보조차도! 그리고 그들만의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의원을 하고 있을까? 초짜 정치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소중한 한 표’를 꿈꾸며!

“출사표”는 1년짜리 계약직 구의원이 된 청춘의 취업기이자 생활 밀착형 정치극이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치적 야심이 아닌 1승이 간절한 취준생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노머니 저스펙 흡수자인 정치 무식자가 구의원이 되어 불량 정치인들의 잔치판을 통쾌하게 뒤엎는 바보의 1승을 꿈꾼다. 우리 동네를 위해 악으로 강으로 싸우는 구의원 1명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 출사표를 던진다.

1
신입사관 구해령

차별을 드러내는 장면들 - “꽃”처럼 살아가기를 기대받는 여성에 대한 묘사

상황1



혼기가 꼭 찬 나이이지만 혼인을 하지 않고 신부학교에 다니는 구해령은 다른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선생님의 질문에 당당하고 정확하게 답을 하는 구해령에게 선생님은 “틀렸다.”라고 꾸짖고, “아녀자는 훌륭한 일도, 나쁜 일도 해서는 안된다.”며 당당하게 대답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 말한다. 구해령은 불만스럽게 “네.”라고 답한다.



상황02



여성 사관 역시 과거를 본 남성 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정식으로 들어온 사관들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급 관리를 뜻하는 ‘서리’라는 명칭을 부여받는다. 이외에도 물을 떠오게 하고, 신발을 닦게 하고, 청소를 시키며 심지어는 식사 중 떨어트린 두부를 줍게 하는 등 사관의 일반적 업무 외에 남성 사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부수적인 일을 수행한다.



상황03



경신수야를 위해 밤새 궐에 남은 4명의 여사들은 술판을 벌이고 서로에게 왜 여사가 되었느냐고 묻는다. 송사희 사관은 이렇게 답한다. “꽃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규문 안의 장식품, 전 그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 고정관념에 따라 규정되어 묘사하는 것이 당연할까? 최근 과거 배경에 판타지가 가미된 픽션에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은 채 다양한 젠더재현을 보이는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다. <신입사관 구해령>의 경우 조선시대 여성 사관의 상황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과거시험에 합격해 사관이라는 직책에 있는 여성들이 성별 때문에 겪어야 했던 부당한 일들을 문제의식과 함께 현실적으로 담았다. 여성에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혼례 후 ‘꽃’처럼 수동적이고 예쁜 장식품으로 살 것을 강요하던 사회상과 이를 원치 않아도 따라야 했던 여성들의 삶을 여성의 언어로 표현하며 드러내었다.

직업적으로 뛰어난 능력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여성 캐릭터

상황01



왕자인 이림은 증거로서 꼭 필요했던 과거의 사초를 찾아냈다. 하지만 원칙상 사관이 아닌 자는 사초를 읽을 수 없다. 이림은 자신의 정체를 알아야 했기에 원칙을 어기고서라도 사초를 보고자 하나, 사관인 구해령은 아무리 왕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사초를 볼 수 없다고 막는다.



상황02



원칙상 신하와 임금의 사관 없이 독대할 수 없다. 그런데 민익평 좌의정이 사관 없이 왕의 침전에서 왕과 독대를 하고 사관을 들여보내주지 않아 구해령은 침전을 몰래 엿듣는다. 하지만 궐을 호위하는 자들에게 붙잡힌다. 임금은 사초에 무엇을 썼는지 묻지만, 구해령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초는 보여드릴 수 없다고 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된다.



상황03



역모를 통해 왕이 된 이태는 자신을 옹호하는 세력을 벌해달라는 신하들의 청을 거절하며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관들에게 멈추라 명한다. 하지만 사관들은 멈추지 않고 구해령은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 “전하 저를 베셔도 사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죽은 이 자리에 다른 사관이 와서 앉을 것이고, 그 사관을 죽이시면 또 다른 사관이 와서 앉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 땅의 모든 사관을 죽이시고 모든 종이와 붓을 빼앗아 가신다 해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노인에게서 아이에게로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게 진실의 힘입니다.” 이후 다른 사관들과 신하들도 이에 동조한다.



위와 같은 구해령의 행동은 책임감과 직업의식 그 이상을 보여준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해야하며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험한 처지가 되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야마는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제껏 많은 한국 드라마에서 권력에 저항하는 역할은 대개 주인공 남성의 몫이었다.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바람직하며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것 또한 남성과 남성의 갈등 구도 안에서 표현되어왔다. <신입사관 구해령>은 왕이라는 권력에 맞서는 신하의 역할에 여성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낯선 설정은 시청자에게 ‘이제까지 왕 주변에서 쓴 소리를 하는 신하의 얼굴로 당연히 남성을 상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신하의 책임을 다하는 데에 성별의 구분이 무의미함을 강조한다.

성별 통념에 따르지 않는 인물들

상황01



민우원의 아내인 단영은 자신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참수를 당한 후 자살한다. 어느 날 조정에 민우원을 탄핵하라며, 죽은 단영의 집안을 문제 삼는 상소가 올라온다. 잊혔던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얘기되고, 사람들이 단영의 이름을 들먹이며 험담을 하자 민우원은 세자(이진)를 찾아가 “단영이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없다”며 부디 사직서를 받아달라고 청한다. 이후 단영이 죽기 전 단영과 함께 살던 집으로 가 과거를 회상하며 서럽게 운다.

상황02



활 쏘기를 연습하는 이림은 화살을 과녁에 맞추지 못한다. 구해령이 비웃자, 이림은 당연히 해령이 활을 잘 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럼 네가 쏘보라.”라고 한다. 그러나 어릴 적 활 쏘는 법을 배운 구해령은 보란 듯이 과녁에 화살을 명중시킨다.

상황03



구해령과 이림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숨어 살고 있는 두창(전염병)에 걸린 엄마와 아직 두창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아이를 발견하였다. 엄마는 아이만이라도 데려가 달라고 울며 부탁한다. 이림은 여성이 저리 울면서 부탁하니 아이를 데려가자고 한다. 하지만 구해령은 저 아이는 두창에 걸린 사람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미 두창에 걸렸을 수 있다며, 아이를 데려갔다가 다른 마을에 전염병이 퍼질 수 있으므로 안 된다고 말한다.

사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대단한 민우원이 단지 아내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언급된다는 이유로 사관이기를 포기하고, 다른 여성과 재혼하지 않은 채 아내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보이는 장면은 조선시대 배우자에 대한 절개가 비단 여성의 것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여성 사관보다 활쏘기에 능하지 못한 왕자는 궁술을 포함한 무술과 전투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나타내고, 아이를 데려가 달라는 아픈 부모의 부탁을 거절하는 구해령과 데려가자고 주장하는 이림의 갈등은 남성 또한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여성은 감정적이고 남성은 이성적이다, 조선시대 여성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남성은 여성보다 활쏘기와 같은 신체 활동이나 전투에 능하다 등은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지닌 흔한 고정관념이다. <신입사관 구해령>은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이 자연스럽지 않음을 지적한다.

2 하이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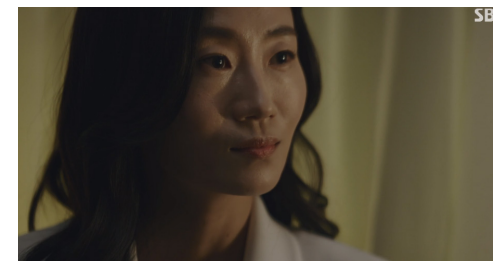
리더 역할을 맡는 여성들

상황01



정금자는 비서 이지은과 함께 법률사무소 ‘총’을 운영하다가 송필중의 요청으로 로펌 ‘송&김’에 파트너 변호사로 들어간다. 송&김에서 정금자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른 변호사들을 이끈다. 그러다 정금자가 송필중과 대립하며 송&김에서 나오자, 정금자와 한 팀이었던 송&김의 변호사들 다수가 정금자의 총 법률사무소로 이직해버린다. 이를 통해 정금자는 비서 이지은과 단둘이 일하던 독고다이 변호사에서 ‘무리’를 이끌며 함께 일하는 리더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상황02



하혜원은 이숨 엔터의 대표로 이숨 그룹 회장이 되려는 야망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드라마 속에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이숨이라는 그룹을 생각한다. 아버지인 하 회장이 송필중의 권모술수에 놀아나며 회사 주가를 떨어뜨리자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며 “AP이언이 대량으로 이숨 주식 사들이고 있는 거 아세요? 이미 주가는 바닥 쳤어요. 왜 이렇게까지



만드신 거예요?”라고 묻자 하 회장은 “송 대표한테 연락해.”라고 말하며 책임감있는 리더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인다. 이에 하혜원은 “언제까지 송필중만 믿고 계실 건데요. 그 사람 정권이 바뀌어도 재계순위가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라고 충고한다. 이후에도 하혜원은 추후 정금자가 송필중을 잡아넣는 데에 일조하며 이숨 그룹의 정상화를 주도할 인물로 암시되기도 한다.

상황03



김민주는 로펌 송&김의 공동대표이자, 공동대표 송필중의 처제이며, 송&김 창립자의 딸이다. 그는 해외에서 생활을 한 뒤 한국으로 들어와 송필중의 영향력이 큰 송&김 내에서 대표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나 대표로서 파트너 변호사인 윤희재에게 사건을 맡기지 윤희재가 “정식 배당입니까?”라며 되물을 정도로 영향력이 작은 인물로 그려진다. 이에 김민주는 “절차상 하자를 묻는 건가요? 이 케이스 내 마음대로 배당하는 거? 대표인 내가 케이스 배당할 때 따라야 할 특별한 절차라도 생긴 건가, 이 송&김에? 혹시 송 대표님한테 허락이나 승인 같은 거 받았냐, 뭐 그런? 설마 아니겠죠?”라고 되받으며 대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드러낸다. 또한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는 송필중에게 “나도 이대로 물러나진 않을 거란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세운 로펌이야. 당신한테 이대로 빼앗기진 않는다고”라고 선언한다. 이후 정금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숨 그룹의 리더인 하혜원과 정금자를 연결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송필중을 ‘사체 은닉 및 증거 인멸죄’로 구속시키는 데 일조한다. 이후 당당히 송&김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

대부분의 경우 대표자, 리더로 남성의 얼굴을 떠올린다. 이러한 젠더고정관념은 미디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드라마에 등장하는 회장님, 사장님, 대표님 등의 배역은 대체로 중년 남성으로 재현된다. <하이ENA>의 정금자, 하혜원, 김민주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세 조직의 리더 혹은 리더가 될 인물로서 이제까지 주로 남성들이 맡아오던 역할을 부여받은 여성들이다. 이들의 등장은 구성원들을 이끌고 조직의 미래를 고민하는 일에 성별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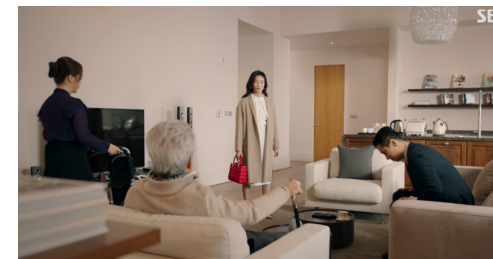
도전하고 맞서는 여성들

상황01



정금자의 양부는 과거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더불어 지속적인 학대와 살인미수로 징역 30년을 받지만 모범수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었고 예정보다 형을 일찍 마치고 사회에 나온다. 이후 정금자를 찾아와 사과하는 동시에 정금자가 자신에게도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정금자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양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지만, 양부는 계속해서 정금자의 곁을 맴돈다. 그러자 정금자는 양부를 직접 찾아가 “내가 여기를 직시해야 다신 너한테 휘둘리지 않을 것 같거든”이라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이자 트라우마를 직면한다. 계속해서 사과 혹은 회개를 원하는 양부에게 “용서는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야. 특히나 너처럼 개 같은 인간은 바라서도 원해서도 안 되는 거야. (중략) 나는 너를 용서한 적이 없거든. 똑똑히 알아둬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는 18살짜리 정은영이가 아니야. 필요하면 다시 내 손에 칼을 찌 거야. 그리고 이번엔 내가 너를 찌를 거고. 그리고는 정당방위로 풀려날 거야. 나는 그런 변호사거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 같잖은 개소린 네 목구멍에 다시 처박아 넣고”라고 경고한 뒤 떠난다.

상황02



하혜원은 이숨 그룹의 장녀이자 이숨 엔터의 대표이다. 그러나 자식의 능력보다 남자라는 성별을 더 중시하는 아버지인 하 회장으로 인해 기업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났다. 이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가 차기 회장으로 염두에 둔 하찬호가 사고를 칠 때마다 회장 자리를 노리지만 아버지인 하 회장은 끊임없이 ‘아들’을 회장으로 두려 한다. 하찬호가 살인사건 용의자로 휘말려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라설 수 없게 되자, 하 회장은 송&김의 송필중과 함께 경영수업도 받지 않은 막내아들인 하준호를 그룹 회장으로 만들어버린다. 이에 하혜원은 “어디 능력도 쥘뿔도 없는 것들을 남자 새끼라고 끼고 돌기는”이라고 일갈하며 아버지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후에도 하혜원은 추후 정금자와 합심하여 이숨 그룹의 정상화를 주도한다.

한국 드라마에서 여성은 남성과의 이성애 관계를 진척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성장이나 업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등장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맞서는 딸의 모습, 가정폭력의 트라우마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애쓰는 딸의 모습, 부당하게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고 이를 되찾으려고 갖은 술수

를 부리는 누나의 모습은 낯설게 보이기도 한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일 것이다. 정금자와 하혜원이 보여주는 노력은 결국 여성도 자신의 안정과 평화, 성공을 위해 애쓰는 인간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의 등장

상황01



변호사인 정금자는 승소하기 위해 상대 변호인의 애인 행세를 하고 비서 이지은은 이에 적극 가담한다. 신분을 위장해 상대 변호사에게 접근 후 정보를 빼오는 것은 위법 행위이지만 정금자와 이지은 콤비는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남자나 사랑이 아닌 돈, 승리, 출세라는 욕망을 위해 수많은 '꼼수'를 펼치며 이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조수이자 비서인 이지은 또한 따지를 걸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꼼수'의 판을 짜는 데 완벽하게 협조한다.

상황02



정금자는 재벌에게 갑질을 당해 1인 시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기도 하고 재벌들에게 자신을 영입하며 비위를 맞추기도 한다. 정금자는 피해자에게 아들이 공부를 잘해 미국 대학에 들어가기도 충분하다며 미국 유학비용 및 생활비 전부를 지원할 테니 합의하자고 제안한다. 심지어 "자존심 포기하고 기회 잡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황을 '기회'라고 표현한다. 정금자도 도덕적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인물이다. 그는 피해자인 서정화를 가해자인 하찬호 곁으로 돌려보내, 끝내 서정화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서정화를 살인하고 사체를 은닉, 증거를 인멸한 송필증을 더욱 치열하게 쫓는다. 이는 정금자가 입체적 가치관을 지닌 캐릭터임을 보여준다.

상황03



법무법인 송&김의 시니어 어소 변호사인 부현아는 여성으로서의 최연소로 송&김의 파트너 변호사 후보에 오를 만큼 유능한 실력자다. 부현아는 정금자를 처음 만났을 때 정금자와 자신의 '급'이 다른 것을 언급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말, 함정을 서슴지 않는 정금자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송&김에서 정금자와 함께 일하게 된 뒤, 정금자의 방식에 감화되어 정금자 스타일을 따르기도 한다. 이를 보고 정금자는 부현아에게 "꽤 하던데"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부현아는 "뭐 어쨌든, 또 먹혔네요. 정 변호사님 일 처리 방식"이라며 정금자를 인정한다. 드라마는 부현아를 통해 고상한 원칙과 정공법만을 따르던 여성 조연이 목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편법도 용인하게 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방향의 성장을 제시한다.

기존 한국 드라마에서 많은 여성들은 사회적 성취를 욕심내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따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가도 이성애 로맨스 내에서는 수동적인 역할로 변모하기도 했다. 따라서 여성 캐릭터가 지닌 입체성을 드라마에서 부각시키고 이를 극 후반까지 유지하는 것은 여성 또한 삶의 다양한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이전에도 <아내의 유혹> 신애리처럼 위법하거나 비열한 행위를 저지르는 여성 캐릭터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불의한 '악녀' 캐릭터는 대부분 조연이며 그들의 목적은 대체로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러나 정금자는 <하이엔나>의 주인공이고 이성의 관심과 사랑을 목적으로 행동하지도 않는다. 이는 항상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여성 주연 캐릭터들과는 다르다. 정금자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길 강하게 갈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품위를 버리고 타협하며 살아남기 위해 다른 약자들을 회유하기도 한다. 즉 정금자는 '정의롭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주인공' 외에도 그동안 남성 캐릭터가 독점해왔던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면서도 도덕성을 잃지 않는 주인공'의 역할이 여성 주연으로도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지은은 몸매를 드러내지 않는 캐주얼한 정장, 쏘트, 안경을 쓰고 색조 화장도 하지 않은 젠더프리한 외양의 비서라는 점에서도 이전에 그려지지 않았던 신선한 조력자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3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성별 고정관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여성들

상황01



전직 변리사였던 은주는 현재 전업주부다. 배우자의 개인병원 침대시트 세탁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 방문한 남동생이 “의사 싸모가 허구한 날 빨래방 아니면 병원 청소야.”라고 말한다. 이에 은주는 “너는 머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의사 싸모’같은 정체불명의 단어가 걸러지지도 않고 막 나오니? 생각 좀 하고 살자.”라며 혼을 내며 여성을 남편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지칭하는 것을 지적한다.



상황02



기억상실증에 걸린 아빠가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엄마에게 잘해주자 엄마는 되려 불편하다. 아빠가 고기쌈을 싸서 엄마에게 주려고 하자 엄마는 거절한다. 지켜보던 아들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나는 우리집 가장 아빠 드리고, 아버지는 이 집 대를 이을 나를 주세요.”라고 한다. 식사가 끝난 뒤 누나들을 배웅하러 나온 상황에서 누나들은 “너 아까 밥상에서 뭐? 이 집의 대를 이을 아들? 우리가 언제부터 아들딸 구분했어? 우리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라며 혼을 낸다.



상황03



프리랜서 변리사로 전향한 은주가 의뢰인인 남성 교수를 만나러 왔다. 교수는 여성 제자에게 은주가 손님이니 커피를 타오라고 시킨다. 교수의 말을 듣고 은주는 표정이 굳더니 커피 취향이 특이해서 직접 타 먹는게 편하다며 그 대학생이 커피 심부름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상황04



자녀가 없는 은주에게 “남편이 부실해서 애가 없나? 뭐 사실 애가 없으니까 일도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지? 김변(김은주 변리사) 나이가 무르익을 나이지.”라며 성희롱하는 남성 교수에게 “교수님 논문은 왜 무르익지 않을까요?”라며 맞받아치고 “학생들한테 도움도 그만 받으시고요. 특히 여학생들한테요. 옛날 같은 때는 기지배들이 대학 다니는 것도 감지덕지라고 하셨다면서요. 왜 맨날 도움은 여학생들한테 받으세요.”라며 이전의 커피 심부름을 언급하며 받아친다.



결혼한 여성을 “사모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누군가의 부인으로만 해석하는 것이고, 집의 대를 잇는 것이 당연히 남성이라는 발언에 대한 지적은 딸과 아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 커피를 타먹겠다는 것은 남성 교수가 여성 제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의 부적절함을 드러내고 왜 아이가 없는지를 물으며 부부의 성관계를 들먹이는 교수에게 논문의 진도를 따지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 문제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적 속에 은주가 자주 등장하는데,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에서 은주는 변리사라는 전문직 여성이지만 결혼 뒤 임신이 되지 않아 가족 구성원으로 자신의 가치를 절하당하는 인물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엄마’라는 타이틀을 가지지 못해 남편이나 시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은주의 모습은 사회가 여성에게 씌우는 역할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지 보여준다. 이러한 캐릭터인 은주를 통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적하는 것은, 은주가 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모습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힘들게 갈등하면서도 여성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혼외임신, 낙태 등 비가시화되었던 주제들을 다룸

상황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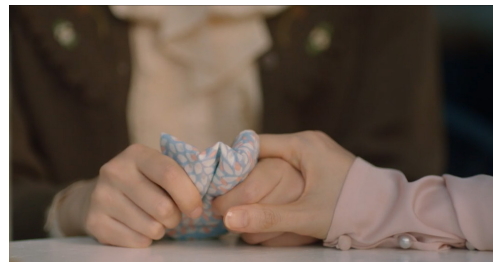
엄마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졸혼”을 선언한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선언 이후 일 때문에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둘째 은희는 과거를 회상하며 엄마가 어떤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엄마 입장에서 이해해보게 된다. 결혼 이후 삶의 대부분을 주방 앞에 선 채로 살았던 60대 여성 진숙의 선언에 자식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엄마가 왜 “졸혼”을 원하는지 이해해보는 내용이 이어지고 결국 엄마의 선택을 존중한다.



상황02



1980년대 초반, 결혼도 안한 여성의 임신은 집안의 커다란 수치였던 사회에 진숙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으나 가족과 아이 아버지인 남성에게 외면당한다.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22살 대학생 진숙은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던 상식과 가족이 된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상식은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었고, 평생 둘만의 비밀로 간직했지만 모종의 사건을 통해 은주에게 상식이 아닌 친아빠가 따로 있음을 밝혀진다. 흔히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 가정이 무너지거나 사건의 해결책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가족’을 이해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아이가 엄마를 원망하는 대사는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나 엄마 인생 망가뜨리면서 태어난 거야?”라며 본인 때문에 엄마가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불행해진 것일까 걱정한다. 은주를 낳은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도 엄마는 죄인처럼 군다. 딸은 묵묵히 그때 나이의 엄마를 이해해주고 마음속으로 “포기하지 않고 낳아줘서 고맙다.”라고 표현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엄마에게 이는 더 가혹하게 작동하여 다른 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책임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부과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스르는 여성은 대개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진다. 더불어 임신과 출산을 제때하지 않거나 정해진 대로 해내지 않는 등 혼외임신이나 낙태를 하는 경우,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주목받지 못하고 사회적 질서를 깨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이 더 강조되어 여성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된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에서는 혼외임신을 하고 낙태를 결심한 엄마의 상황에 대해 이를 이해하려는 자식들의 노력에 초점을 두고 보여주면서 사회적 질서를 깬 엄마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비춘다. 이는 기존 드라마에서 혼외임신이나 낙태를 극의 자극적인 요소로 사용해왔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4 눈이 부시게

노인 희화화에 대한 비판

상황이



혜자와 상은, 현주가 함께 저녁에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혜자가 효자효도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자 상은과 현주가 각자 만나 본 노인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상은은 자신의 할머니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낸 적이 있다 말하고, 현주는 노인들을 보면 꼭 슬로우 모션 같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의 행동을 흉내 내며 웃는다. 이를 들던 혜자는 친구들에게 “너네(너희)가 뭘 알아. 나도 그래, 나도 그런다고.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걷는 거야. 마음으론 벌써 100미터 뺨박질했어. 너희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 쉬는 거,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되게 감사한 거야. 하루하루 몸이 다르다고. 너네가 그걸 알아?”라며 화를 낸다.



이 장면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노인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친구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혜자의 모습을 통해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몸이 불편하여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 ‘귀가 어두워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노인’ 등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생기는 일들을 희화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입체적인 여성 노인 캐릭터 묘사

상황1



성형외과에 가려던 샤넬 할머니.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젊은 여성은 샤넬 할머니가 노인이나 치과에 갈 것이라 판단하여 치과가 있는 층을 알려준다. 이에 머쓱한 샤넬 할머니는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치과가 있는 층인 3층의 버튼을 누른다. 이후 혜자가 들어와서 다시 성형외과가 있는 4층을 누르자, 젊은 여성은 또 4층은 성형외과라고 말한다. 혜자는 “여기 써 있네, 성형외과”라며 자신이 성형외과에 간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힌다.



상황2



성형외과에 들어간 혜자와 샤넬 할머니. 사람들은 성형외과에 웬 노인이 오냐며 수군거린다. 심지어 한 커플은 그들에게 “다 늙어서 주책이다.”라며 비웃고, 몰래 사진을 찍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매우 화가 난 혜자. 그녀는 몰래 사진을 찍은 커플에게 “막 웃기지? 짜그렁망탱이 다 돼서 누구 봐 줄 사람도 없는데 돈 아깝게 성형이나 싶지?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도 아침에 세수하고 이 닦을 때 거울 보잖아. 그때마다 내가 좀 흡족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는 거야. 느들(너희들) 여기 와서 막 트고 하는 거 뭐가 맘에 안 들어서 하는 거잖아.”라며 커플의 얼굴을 품평한다. 화가 난 남자가 혜자에게 따지자, 혜자는 늙은 얼굴은 너희가 마음껏 품평해도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되냐고 하며 늙은 게 죄냐고 반문한다. 이어서 “예뻐지고 싶은 마음 그대로 몸만 늙은 거야.”라며 속마음을 말한다.



이전까지 여성 노인은 어머니, 할머니의 역할로 가정에 헌신하며 항상 자신의 욕망을 뒤로하고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모습 등으로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위 장면은 여성 노인도 자율성을 가진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각자의 욕망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그려낸다. 특정한 미의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욕망이 여성의 주요 가치를 외모로 판단하는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장면이 여성의 외모 꾸밈에 대한 압박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쉽다. 허나 욕망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실현하는 여성 노인을 재현하여, 수동적이며 가정에 희생적인 캐릭터로 주로 소비되어 왔던 노년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과 다양성을 드러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5 멜로가 체질

“오빠”라는 표현을 강요하는 문화에 대한 일침

상황1



직장에서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남성 상사가 여성인 은정에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거라면 자기 차를 운전해달라고 요구한다. 결국 술을 마시지 않은 은정이 상사를 태우고 차를 몰아 상사를 아파트까지 데려다준다. 상사는 집에 도착했는데도 내리지 않고 은정을 향해 “오빠라고 해볼래.”라고 말한다. 은정은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상사를 바라보며, “오빠 이 개새끼야?”하고 차를 운전해 쓰레기를 들이받는다. 상사는 겁을 먹은 채 차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은정은 야구방망이를 주워 도망가는 상사를 쫓아간다. 이후 은정은 퇴사한 후 1인 다큐멘터리 제작사를 차린다.



상황2



드라마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한주는 PPL로 들어온 청소기 상품을 중년남성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노출되게끔 해야 하는데 배우가 이를 거부한다. 이에 한주는 감독에게 배우가 이 장면에서 이 상품을 사용하는 건 사전에 합의된 내용인데 다들 외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며 호소한다. 그러자 감독은 배우도 감독도 촬영감독도 매니저도 전부 남성이니 “오빠야~ 해봐요”, “오빠~ 하면서 애교 좀 부려주면 안 해주겠어?”, “왜 여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맨날 그렇게 죽는 소리 줄 모르겠네.”라며 한주에게 책임을 돌리고 애교와 오빠 호칭을 강요한다. 재훈은 한주와 같이 황당해한다. 한주가 이 일을 진주, 은정, 범수와의 식사 자리에서 털어놓자 진주는 여성에게 애교를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은정은 한주에게 그럼 그냥 해줘 버리라고 말한다. 다음날, 한주는 촬영장에서 과장한 높은 톤과 허 짧은 목소리로 남성 배우를 향해 “오빠”라고 부르며 일부러 호들갑을 떨다. 남성 매니저에게도 달려가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오빠”를 남발한다. 이후 “오빠” 호칭을 강요한 감독에게도 “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 (노래를 부르듯이) 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 오빠오빠 강남스타일~” 등으로 감독을 당황스럽게 한다.



이후에도 한주가 남성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과장된 애교를 부리고 다니자 중년 남성 배우가 결국 PPL 연기를 하겠다고 자포자기한다.

“오빠”는 여성이 손위의 남자형제를 부르는 호칭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오빠”라는 표현은 대개 격의 없는 호칭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행위’를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성희롱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¹ 따라서 어떤 조직 내에서 상급자 남성이 낮은 직급의 여성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여성을 같은 조직의 구성원 또는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성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성’으로 바라보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소개된 두 개의 장면은 “오빠”라는 호칭이 지닌 이러한 문제점을 직장 내 여성의 입장에서 그대로 드러냈다. 성희롱을 일삼는 남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빠”를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속어와 함께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거나(장면1) 과도하게 여러 번 반복하는(장면2) 방식을 통해 그러한 호칭을 요구하는 남성들을 비판한다.

¹ 한겨레 신문, “오빠가 도와줄게...오빠 드립은 이제 그만”, 2018년 3월 1일 기사 참고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834195.html

서로 갈등하고 연대하며 각자의 사회적 성취를 이뤄가는 여성들

상황1



사각관계에 휘말린 네 명의 남녀가 함께 식사를 한다. 얼마 뒤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여성인 혜정과 진주 둘만 남는다. 둘은 극 초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혜정은 까다로운 상사이고 혜정의 보조 작가였던 진주는 그런 상사에게 고분고분하게 속이지 않다가 해고를 당했다. 진주가 공모전에 낸 작품의 드라마화가 결정되자, 혜정은 자존심이 상해 진주의 작품이 방영되면 자신은 이제 해당 방송국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런 불편한 관계를 둘 사이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 혜정은 진주에게 “네 글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해서” 질투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주에게 그래도 내 새끼였으니 사수의 명예를 지키는 정도만 하라며 덕담을 전한다. 혜정의 솔직한 고백에 진주는 웃으며 이전에 진주도 함께 일했던, 혜정의 보조 작가들 중 한 명을 자신의 보조 작가로 보내줄 것을 부탁한다. 혜정은 진주가 털어놓는 1인 작가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을 해보겠다고 승낙한다.

이 드라마는 사이가 좋지 않거나 혹은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인물 간의 관계를 주류 문법대로 풀어내지 않는다. 기존 한국 드라마는 로맨스 관계 내에서 남성의 애정을 두고 서로 다투는 여성들을 “여성의 적은 여자(여적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전

개는 오직 남성과의 관계로만 여성의 캐릭터가 설명되도록 만들어 다양한 여성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멜로가 체질>은 여성 간 갈등에 남성을 별도로 등장시키지 않으며 여성 캐릭터 각자의 욕망에 따라 다른 인물과 갈등하고 또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 여성들이 그러하듯, 여성들 간의 관계맺음의 입체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6 출사표

현실적으로 그려지는 워킹맘의 직장생활

상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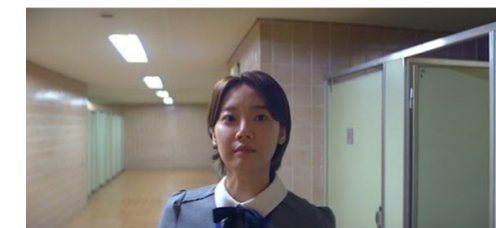


주인공 구세라의 친구이자 워킹맘인 권우영은 힘겹게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한다. 변변한 휴게실도 없는 회사의 화장실에서 모유를 수축한 뒤 권우영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상사는 권우영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다. 우영이 자신은 육아휴직, 출산휴가도 다 쓰지 못했이라며 해고 사유를 묻자 상사는 “그럼 어떡하냐. 애 둘 딸린 가장인 김 과장을 내보내? 아님, 내년에 새신랑 되는 이 대리를 나가라고 해? 그러게 왜 시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자리를 비워?”라고 푸념한다. 우영 역시 상사가 예로 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인데도 여성과 남성을 다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 후 우영은 한비, 세라와 만나 “결혼하고 애 생기니까 세상에 약점 잡힌 기분이야.”라고 털어놓으며 오열한다.

상황02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위해 권우영은 은행에서 인턴십을 시작한다. 인턴십 기간에 많은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으나 화장실에서 인턴 동기들이 자신을 두고 “애엄마가 집에서 애나 보지.”라고 뒷담화하는 것을 듣게 된다. 이에 화가 나면서도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반박하지 못하고 화를 참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장면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기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때 권우영은 상사에게 자신의 처지와 다른 남성 사원들의 처지를 같이 언급하며 화를 내고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후 재취업이 되어서는 자신을 '애엄마'라고 홍보는 인턴 동기들과의 관계와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이는 워킹맘이 직장 내에서 차별적인 구조에 직면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남성 중심적인 정치에 뛰어난 여성들

상황01



원소정 구청장을 제외한 구의회 구의원 중, 드라마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여성 인물은 구세라와 윤희수뿐이다. 회의 장면에서도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대사 한 줄 없는 여성 의회 구의원을 제외하면 여성은 구세라와 윤희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치계에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이 진출해 있는 현실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인공인 구세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내고 역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적절한 반박 근거나 증거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남성중심 사회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황02



구세라와 함께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 중 당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았던 여성 후보인 손은실이 후보자 연설회에서 갑작스러운 사퇴 의사를 밝힌다. 동시에 후보로 출마한 구세라를 지지할 것이며, 자신의 지지자들도 구세라를 응원해주기를 부탁한다. 이때 손은실은 "세라 씨가 당선되면 더 많은 보통 사람들이 도전할 기회가 열려요. 내 한 표를 세라 씨에게 주는 거예요. 꼭 승리하십시오."라고 한다.

상황03



후보 유세 중에 구세라와 장한비가 노년 남성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선거유세를 벌인다. 구세라와 장한비 등장에 노년 남성들은 나이와 결혼 여부부터 물으며 "정치 같은 큰일은 남자들이 해야지! 선거니 뭐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얼른 시집가서 애나 낳아! 그게 여자의 행복이고 의무고 숙명이야!"라고 욕박지른다. 이러한 말을 듣고 구세라는 따지려 하지만 장한비가 구세라를 말리며 끌고 간다. 장한비도 남성들의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만 갈등을 피하고 의원 후보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구세라를 말린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737명 중 여성 당선자는 98명, 기초의원 2,541명 중 여성은 526명으로 각각 13.3%, 20.7%의 성비를 보인다. 1995년 첫 선거 이후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도와 같은 지방 자치 단체의 대표인 광역단체장에 여성이 당선된 사례는 없다. 청년들의 기초의회 진입 또한 처참하다. 광역의원 중 40세 미만의 자는 33명으로 대략 4%에 불과하고 기초의원 2,541명 중 40세 미만 당선인은 166명으로 6%를 차지한다.

이렇게 50-60대 남성 중심의 기초의회에 취업준비생의 신분으로 구의원에 출마하는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것만으로도 드라마 <출사표>는 의의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여성들이 서로 갈등하고 배신하며 또 각자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치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더불어 노년 남성이 후보로 출마한 젊은 여성에게 '결혼해서 애나 낳아라'라는 발언을 하는 장면은 남성만을 정치 같은 중대사에 적합한 성별로 보아 여성을 정치 참여 주체에서 배제하며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여성상에 한정하는 성차별적 통념을 나타낸다.

04 나가며

모니터링한 드라마에서 발견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들 간의 갈등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드라마 <하이에나>에서 주인공 정금자는 그동안 남성 캐릭터가 독점해왔던 ‘자신의 욕망에 충실함에도 도덕성을 잃지 않는 주인공’을 보여주면서도 그 욕망 때문에 많은 여성들과 각을 세우며 싸우고 또 같은 편에 서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멜로가 체질>은 여성 간 갈등을 남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여적여’ 구도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성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표현한다. <출사표> 또한 기존 드라마에서 남성 정치인들이 겪는 반복되는 대립과 화합을 여성 정치인의 것으로 바꾸어냈다. 이러한 요소는 여성이 성별이나 나이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특성은 성별 고정관념을 지적하는 대사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신입사관 구해령>이다. 이 드라마에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사관’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지 못하고 남성 사관들을 보조하는 일을 하며 궁궐 밖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차별적인 시선을 견뎌야 하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여성 사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사관 세계의 성차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바라는 역할의 모순을 드러낸다. 더불어 그러한 차별과 모순이 조선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드라마가 방영되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소수자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들이 겪는 차별이 어떤 것인지 드러냈다. <눈이 부시게>는 노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사회에 존재하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었고 <출사표>는 워킹맘이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다시 재취업하는 과정을 보여주어 고용시장에 만연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드러내기도 했다.

성차별적인 드라마콘텐츠에 염증을 느낀 시청자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사소화하지 않으면서 여성 또한 하나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는 대개 넷플릭스나 왓챗과 같은 플랫폼에 접속해야 했다. 작년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에서 “성평등한 콘텐츠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해외 드라마를 모니터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여성 서사’라 할 수 있는 한국 콘텐츠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TV 방송을 통해 방영된 프라임 타임 드라마 중에서 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 불과 1년 만에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 드라마에서도 발견하게 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이는 오랜 시간 미디어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해온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려는 방송 제작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본다. 한국 드라마를 모니터링하며 알게 된 것은 여성은 그 어떤 역할, 그 어떤 갈등에도 잘 어울린다는 사실이다. 성별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거스르면서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도 충분히 멋진 여성의 모습을 더 많은 드라마에서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발행인 : 이유림 | 편집인 : 양진희 | 편집 : 최복경(에디터)김유민(서울YWCA 여성운동부) | 감수 : 김수이(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 발행처 : 서울YWCA | 주주 : 06538 서울시중구영동1가길20
전화 : 02-3705-6069 | 팩스 : 02-3705-6020 | 홈페이지 : www.seoulwca.or.kr |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